



하나금융그룹

2021년 7월 6일 | Global Asset Research

[알파시황]

다음 선택지

외국인 &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들 특징: 확대된 이익 영향력 대비 더딘 시총 증가

최근 국내 증시는 성장-가치주가 번갈아 상승하며 신고가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수급이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6월 FOMC 회의 이후 외국인과 기관은 KOSPI에서 각각 -2.0조원, -3.5조원 가량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달리 강세 등이 매도 재료로 작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재료들은 하반기 중 노이즈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시장의 불안심리를 축발하였던 미 장기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이머징 증시에 우호적인 제반을 마련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익 모멘텀의 둔화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16주 연속 상향조정 되고 있다. (2일 기준 220조원)

하반기 중 수급 개선이 진행 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들의 특징에 주목해보자. 6월 FOMC 회의 종료 이후 양 주체는 합산 기준으로 IT, 소재, 헬스케어에서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섹터들의 특징은 21년 KOSPI 내 시가총액 기여도와 영업이익 기여도의 갭 차이가 높다는 점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헬스케어/반도체/화학/철강/디스플레이/에너지 순으로 이익 영향력이 확대된 것 대비 시총 증가가 더디었다.

IT(하드웨어, 반도체)와 헬스케어 상승 여력에 주목

그 중 BM 대비 초과 성과를 시현하지 못한 섹터는 IT와 헬스케어였는데, 그간 관련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장기물 급등 가능성이 낮아진 점은 하반기 중 해당 업종의 추가 상승 여력을 높여준다고 판단한다.

두 섹터 중 헬스케어는 키맞추기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FOMC 회의 이후 누적 수익률이 상위권에 속한다. 헬스케어의 경우 이익 기여도는 높지 않지만, 상반기 가장 낮은 수익률(-12.0%)을 기록한 업종이였기에 시총-영업이익 기여도 갭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물론 하반기 중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EPS가 상향조정되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은 직전 성장주 강세장이었던 20년 7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그 다음으로 수익률이 부진하였던 IT는 하드웨어(+2.2%)와 반도체(+0.2%)다. 해당 업종들은 이익 모멘텀까지 갖추었음에도 상대적인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은 2분기 영업이익 추정지 상향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EPS 상향/하향조정 기업 상대강도 역시 직전 성장주 강세장 수준에 근접했다. 매출총이익률 또한 BM 대비 높아 원재료 부담을 커버할 수 있는 이익 창출 능력 또한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Investment Idea

Equity



주식시황 이재선

02-3771-3624

jaesun0216@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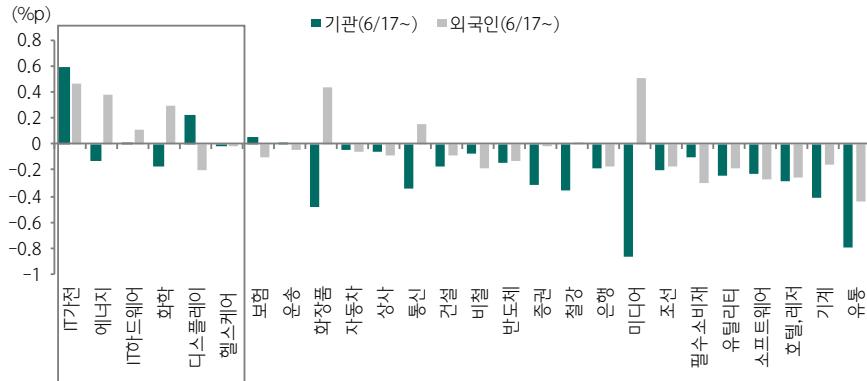
다음 선택지

그림 1. FOMC 이후 외국인과 기관은 KOSPI 매도 우위: 그러나 업종별로 보자면 IT, 소재, 헬스케어 업종 순매수 우위 시현

FOMC 회의 이후 외국인과 기관은 KOSPI에서 각각 -2.0조원, -3.5조원 가량 매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 우려, 달려 강세 등이 매도 재료로 작용

그러나 합산 기준으로 IT (가전, HW, 디스플레이), 소재 (화학, 에너지), 헬스케어 업종 순매수 우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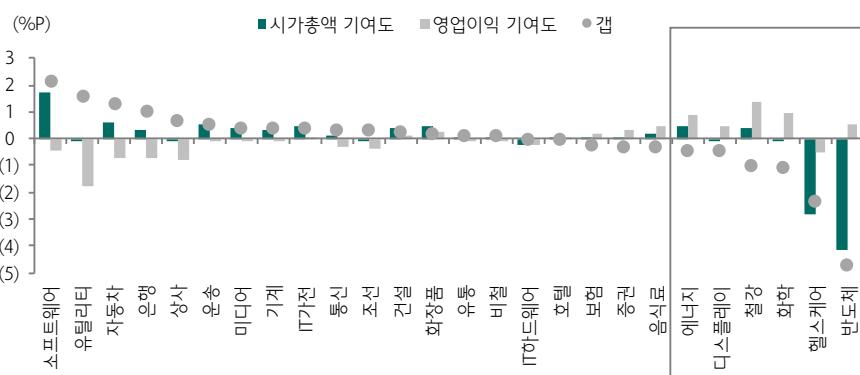
주: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율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2. 선택받은 업종의 특징: 상반기 중 KOSPI 시총-이익 기여도 갭이 높았던 업종들

해당 업종들은 21년 시가총액과 이익의 갭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들

KOSPI 시총 증가에 낮은 기여 vs 반면 KOSPI 2021년 영업이익 상향조정에 높은 기여를 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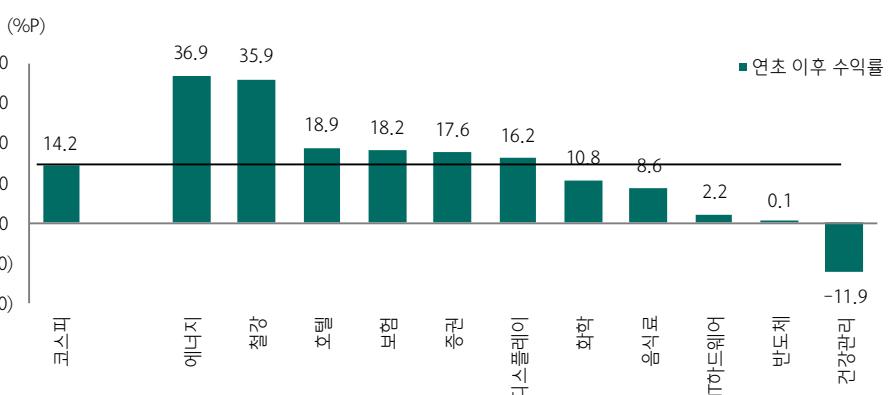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3. 선택받은 업종들 중 연초 이후 수익률이 부진하였던 업종은 IT(반도체, IT HW)와 헬스케어

특히 상반기 헬스케어와 IT섹터는 시총-영업이익 갭이 가장 높았던 섹터 중 하나

헬스케어의 경우 이익 기여도는 낮았으나, 상반기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이었기에 갭이 확대된 경향

IT의 경우 이익 상향조정 대비 정체된 수익률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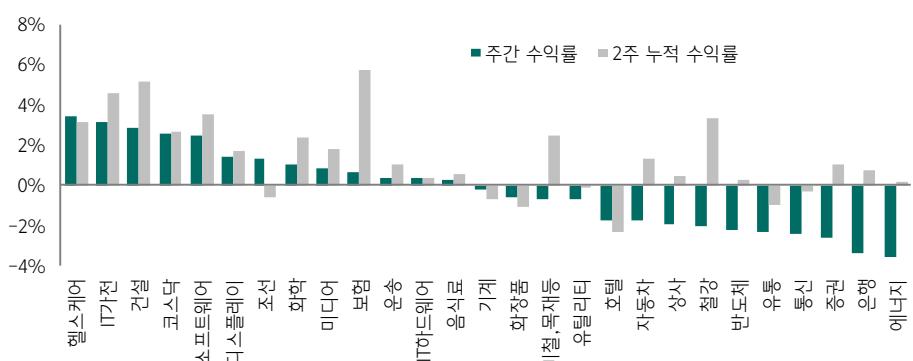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최근 헬스케어 업종은 6월 FOMC 회의 이후 상대적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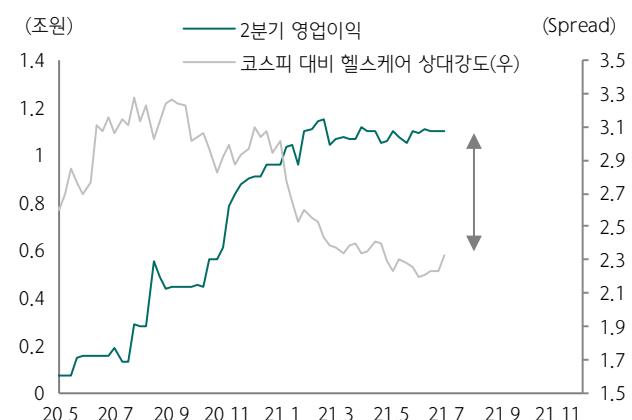
그간 성장주에 발목을 잡았던 장기물 급등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여타 우호적인 환경도 상승세 일조

그림 4. 상반기 수익률이 가장 부진하였던 헬스케어, 먼저 키맞추기 진행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5. 헬스케어 업종의 2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중립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6. 그러나 기업들의 이익 상향 추정치는 작년 성장주 강세장이었던 20년 7월 수준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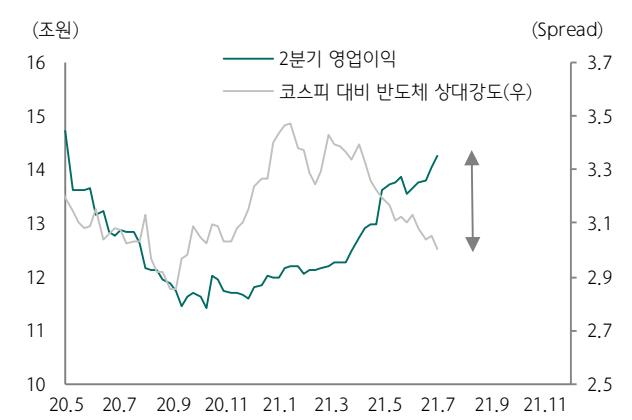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7. IT 섹터는 이익 모멘텀까지 갖추었음에도 상대적인 저평가 지속: IT 하드웨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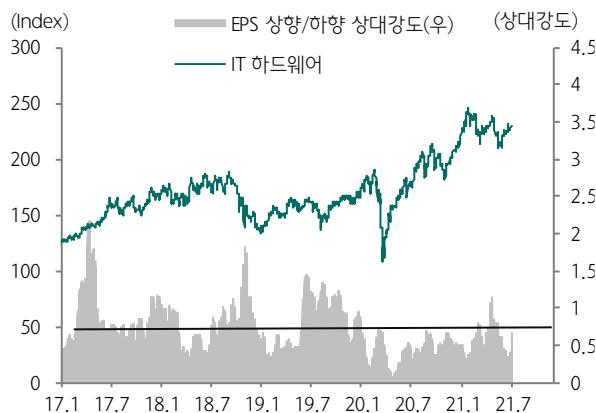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8. 반도체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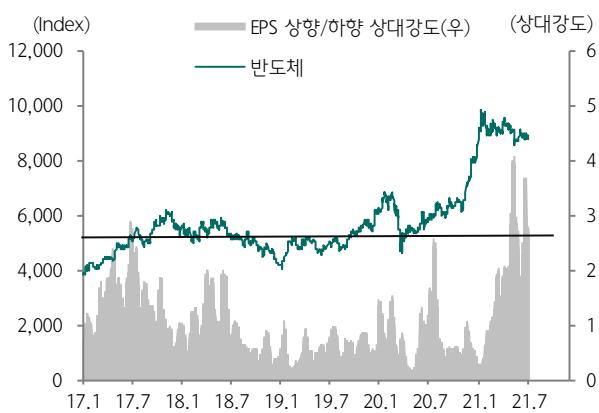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9. IT 하드웨어의 경우 EPS 추정치가 상향조정된 기업들은 작년 성장주 강세장 수준까지 많아지고 있어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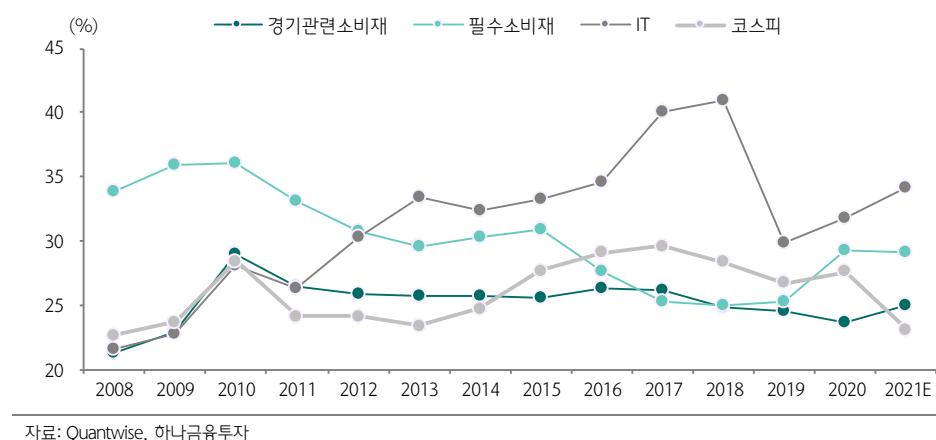
그림 10. 이는 반도체도 마찬가지, EPS 상향/하향조정 기업 상대강도 작년 성장주 강세장 수준 이상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IT 업종은 BM 대비 높은 매출이익률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아

원자료 부담을 커버할 수 있는 이익창출 능력 또한 보유한 점도 IT 섹터의 매력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부분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